

36.9%를, 식품영양관련 정보는 4,848건으로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건강관련 정보 대비 식품영양정보 건수의 비율은 86.2%로 높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17.9%에서 16.1%,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6.6%에서 3.6%로 낮아졌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51.5%에서 94.6%,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32.4%에서 57.4%로 높게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 방송시간비율은 20.8%에서 17.2%로 낮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되는 달은 2002년 10월, 2003년 9월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의 주제로는 뉴스프로그램은 질환, 건강정보프로그램은 음식,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은 식품, 노인정보프로그램은 생활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의 취재원으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터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한 평가율은 뉴스는 49.3%에서 72.2%로, 건강정보프로그램은 54.0%에서 67.8%로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높게 나타났으나, 드라마는 63.2%에서 16.2%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린이교육프로그램 40.0%, 노인정보프로그램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에서 음식의 양이 부적절한 경우는 28.6%에서 15.8%로 낮아졌으나, 음주장면의 경우 10.7%에서 11.5%로 증가하였음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 장면의 경우 드라마상의 흡연장면 방송금지 선언의 여파로 1.6%에서 0.2%로 감소하였다. 뉴스 및 정보프로그램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정보들은 적정섭취량이나 실생활에 활용할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영양가 비교기준이 다르거나, 식품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의 경우 음주, 커피, 야식 등 불필요한 식사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음식의 양이 사람수에 비해 많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건강관련 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이 중 식품영양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관련정보기사의 질적인 평가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P-55】

간호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

윤현숙 · 최운영¹⁾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마산 복음병원¹⁾

영양사들이 영양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중한 급식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이나 영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도 있어 간호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병원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양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하여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진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산시와 창원시 및 경남함안군에 위치한 2-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197명)와 간호조무사(94명) 291명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중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였다.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에 74.2%, '약간 필요하다'에 32.8%를 보였으며, 간호사와 전문대 졸업이상에서 간호조무사와 고졸자에 비하여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47.9%, 이수한 자는 52.1%이었으며, 간호조무사(60.4%)가 간호사(42.1%)에 비하여($p < 0.01$), 그리고 근무경력 2년 이상(51.5~59.4%)에서 2년 미만(34.4%)에 비하여($p < 0.05$)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관련 과목 이수자 중 영양지식 습득정도는 58.7%가 '부족'한 것으로, 40.6%가 '보통'인 것으로 답하여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답하여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5$).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6%, 없는 자는 91.4%로 간호사에게 영양교육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담당자의 책임자로는 영양사 69.3%, 간호사 21.3%로 답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양교육 책임자로 영양사 82.7%, 간호사 5.8%로 답한 반면 간호사는 영양사 63.5%, 간호사 27.9%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기회가 주어지면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가 47.2%,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가 52.8%로 약 1/2정도는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상자의 43.4%가 '전문지식 부족', 40.5%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가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치료 시에 영양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8.8%, 지

도경험이 없는 자는 51.2%로 나타났으며, 간호사(60.9%)가 간호조무사(23.4%)에 비하여 지도경험율이 높고($p < 0.001$), 기혼자(57.4%)가 미혼자(44.2%)에 비하여 높으며($p < 0.05$), 근무경력 2년 이상이 2년 미만에 비하여($p < 0.05$), 그리고 전문대 졸업 이상이 고졸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01$). 영양지식점수의 분포는 good group 55.3%, fair group 41.2%, poor group이 3.4%이었으며, good group의 평균 점수는 16.1 ± 1.1 점, fair group은 12.7 ± 1.4 점, poor group은 6.6 ± 2.8 점으로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영양지식 점수의 전체평균은 20점 만점에 14.3 ± 2.5 점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환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과 내에 급식관리와는 별도로 임상영양 및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영양사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간호사를 영양교육의 책임자로 보는 시각이 비교적 높았고 약 1/2정도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양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 정도가 영양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91.4%가 영양교육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56】

하수오환의 섭취가 인체 LDL 산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이은주[†] · 권혜순¹⁾ ·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농협중앙회 식품연구소¹⁾

최근 여러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각 종 항산화물질들이 노화과정과 산화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식품개발에 이용 가능한 천연 약용식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있다. 생리활성 물질은 적은 양으로 생체 내에서 영양소 또는 호르몬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로서 천연식물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LDL의 산화는 동맥경화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된 LDL은 단핵구/대식세포에 의해 유입되어 foam cell을 형성하여 동맥경화의 초기 조직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천연물질에 의한 LDL산화 억제는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백하수오는 예로부터 노화억제 효능을 가진 식물로 한약재 또는 식품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그 효능과 관련한 그 과학적 검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하수오가 소유한 노화억제 효능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오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인체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방법은 double blinded, cross-over design을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하루에 6g 하수오환을 일주일간 건강한 성인여성에게 섭취시켰다. 실험기간동안 제공된 식이의 탄/단/지의 비율은 52.1 : 21.3 : 26.6으로 지방의 비율을 일반식사에 비해 높게 제공함으로써 고지방 식이시 하수오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대상자의 신장은 162.07 ± 3.79 cm이었고 몸무게는 51.17 ± 11.34 kg, BMI는 20.47 ± 2.11 이었다. 실험결과, 혈장 지질 과산화물 형성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혈장의 LDL을 분리시켜 Cu로 산화를 유도시켰을 때 하수오 섭취군에서 LDL 산화가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하수오는 인체에서도 지질과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능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도 농림부의 현장애로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P-57】

부산 일부지역 중년층의 당뇨위험군의 식습관 · 영양섭취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심언진[†] · 김상애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및 운동부족 등은 생활습관병의 주요관련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도 사망원인 순위는 인구10명당 사망자수가 24명으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4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우 당뇨병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 · 영양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당뇨 질환의 예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